

사랑의 집짓기 운동 참관기

An Essay on the 'HaBITAT' in Kwang-Yang

이정수 /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사

by Lee Jeong-Soo

16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낙선운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NGO'라는 단어와 '시민운동'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축을 생업의 수단으로 하고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NGO'나 '시민운동'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인 양 그리고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서는 건축사들이 주변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NGO운동을 소개하고, 이번 여름 광양에서 개최된 '평화를 여는 마을' 행사를 참가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랑의 집짓기(HABITAT) 운동이란

사실 해비타트(Habitat)는 말 그대로 거주지란 뜻이다. 즉,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운동이다. 1976년 밀라드 풀러(Millard Fuller) 부부에 의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65개국에 10만채가 넘는 집을 건축하였으며, 전세계 40여개국에서 매년 수만채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개인, 교회, 기업, 각종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희망의 지붕을 만들어주려는 운동이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전과정을 통하여 모두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의해 건축되는 집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노동과 기부된 자재, 그리고 후원된 건축 기금이 사용되어 일반 건축비의 60% 정도로 건축된다. 이 집들은 집 없는 가정에게 무이자, 비영리의 원칙으로 저가 판매되며, 입주자정은 자신의 집이나 다른 이들의 집을 짓는데 최소한 500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원가를 약 15년 정도의 정해진 기간 내에 무이자 분할 상환함으로써, 입주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조 주택 건축운동이다. 이 상환금은 '회전기금'으로 적립되어 또 다른 이웃의 집을 건축하는데 계속 사용된다.

현재 국제 해비타트는 전세계적으로 67개국에 1,700개의 지회가 있으며, 100,000여 채의 집을 이

웃들과 함께 건축되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http://www.habitat.or.kr>)는 1995년 건설 교통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2000년 초 현재 국내에 39채(의정부 15채, 태백 8채, 진주 등), 해외(필리핀) 120채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의정부, 태백, 진주, 서울, 대구, 천안·아산, 울산에 지회가 있다.

JCWP(Jimmy Carter Work Project)

“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로 있을 때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미 카터)

흔히들 사랑의 집짓기(HABITAT) 운동은 지미 카터(Jimmy Carter)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운동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지미 카터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한사람일 뿐이다. 국제 해비타트는 1984년 이래 매년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자원봉사단장으로 하는 「Jimmy Carter Work Project (JCWP)」라는 대규모 단기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JCWP에서는 매년 세계각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사랑의 집을 건축함으로써 봉사하고 있다.

이렇듯 사랑의 집짓기(HABITAT) 운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다. '집짓기' 운동이라고 하니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참가가 가능한 운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내가 흘린 땀방울 위에 한 채 두 채 집들이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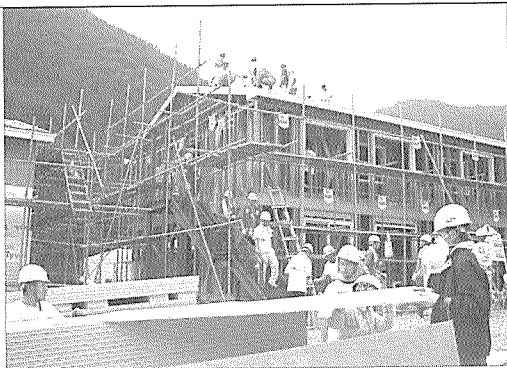
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 '평화를 여는 마을'

국내에서는 올 여름(2000년 8월 6일~12일), 섬진강변인 전남 광양시 다암면에서 '평화를 여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34채의 집이 건축되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운데에는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참가한 150여명의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주일동안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가운데, '땀으로 하나되는' 민족 대화합의 마당이 열린 것이다.

이 행사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1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 참가비(학생:150,000원, 일반:170,000원)와 함께, 자신이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 및 연장을 지참한 상태에서 현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많은 건축 전문가-건설업체, 건축사, 교수, 그리고 현장 근로자 등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함께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였다.

건축현장은 각 동(4세대)의 작업을 진행하는 빌딩 리더(building leader) 3명과 크루 리더(crew leader) 7명이 배정되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의 지시에 의해 매일 작업을 지시받아 함께 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 동별로 현장에 참가한 빌딩 리더나 크루 리더의 수는 태부족이었고,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작업을 지원하는데 돌발적인 난제가 대두되곤 하였다. 필자 역시 대학내 학생들과 함께 단순 자원봉사자로서 참가하였지만, 빌딩 및 크루 리더 부족으로 크루 리더(crew leader)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골조만 완성되어 있던 작업 첫째날



자원봉사자에 의한 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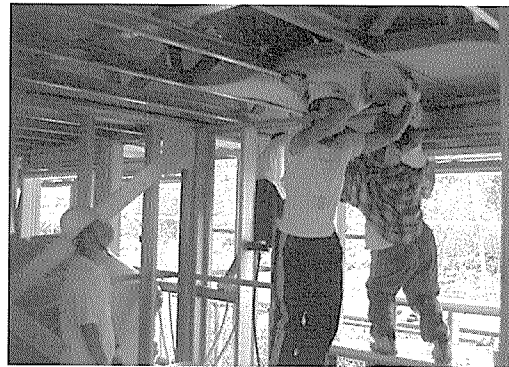
실제적으로 국내에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스틸 하우스 공법과, 대규모로 처음 실시되는 집짓기 행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수행능력과 작업 완성도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의 모습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다. 사실, 집짓기는 '개미군단(자원봉사자)'의 승리이었다. 1,400여명에 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모여서,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가지씩 물어가면서 정성과 열정으로 집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가능한 빨리 완성하고자하는 의욕이 앞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의적으로 시공하는 등, 그리고 이를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등 시행착오와 수정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건축자재 및 장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건축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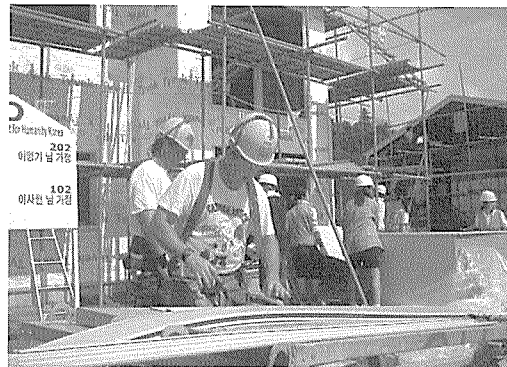
특히 내년(2001년 8월 5일-12일)에는 HABITAT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JCWP(Jimmy Carter Work Project)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현장에는 전세계 35개국에서 10,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국제 자원봉사자도 2,00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120채의 주택이 국내의 집 없는 가정을 위하여 제공될 것이다.

이번 평화를 여는 마을 행사를 지켜보면서, 「건축사 현장」에 새겨진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사실 내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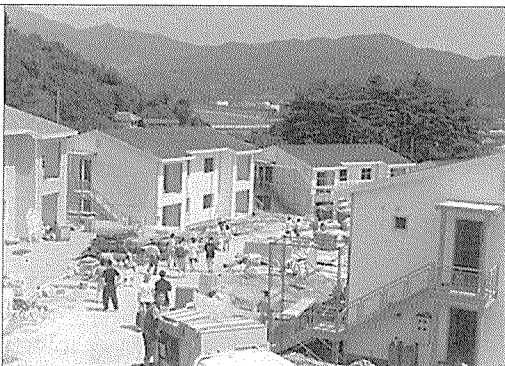
JCWP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건축 전문가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자원 봉사자에 의한 내부 마감공사



외국인 자원봉사자의 작업모습



완성단계의 단지 전경



일싸안은 입주자와 자원봉사자(현정식)